

한·미·불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영아기 이상적인 모성행동

Ideal Maternal Behaviors as Viewed by Professionals
in Three Different Cultures : Korea,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구 미 향*

Koo, Meehyang

이 양 회**

Lee, Yanghee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ideal maternal behaviors in three different cultures : Korea,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The 18 experts from each of the 3 culture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had knowledge and experience related to infant development and parenting. Based on the principles of Q-methodology, the experts sorted 40 Q-items representing maternal behavior related to infancy. After rating each item on a scale from “least desirable” to “most desirable” maternal behaviors, the experts described their reasons for the classification. Results identified some clea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cultures. Pooled responses yielded 3 types of ideal maternal behaviors: perfective, child centered, and realistic perspective.

Key Words : 모성행동(maternal behavior), 문화(cultures), Q 방법론(Q-methodology)

* 접수 2002년 2월 8일, 채택 2002년 2월 22일

*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BK21 연구교수, E-mail : viakoo@hanmail.net

**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I. 서론

인간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생후 첫 2년에 해당하는 영아기는 생존과 안전, 그리고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해 다른 어느 시기보다 양육자의 돌봄에 의지해야하는 시기이다. 특히 영아기는 신체적·정서적·인지적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부모는 영아의 건강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 환경이 된다(방경숙, 2001). 특히 어머니는 임신과 출산의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출산 후 자녀의 주 양육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여겨져 왔다.

모성행동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이나 태도, 신념 등을 의미하는데, Stevenson-Hinde(1998)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부성행동(paternal behavior)과 모성행동(maternal behavior)으로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모성행동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온 많은 연구들은 어머니의 민감성과 반응성, 영아에게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고 상호작용하는 양육행동 등이 영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을 제시하여 왔다(Ainsworth, 1979; Belsky, 1981; Goldsmith & Alansky, 1987).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모성행동과 관련된 쟁점들을 한 문화권내의 논의에 국한시키지 않고 상황적 맥락에서 고려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Harwood, Schoelmerich, Schulze, Gonzalez, 1999; Stevenson-Hinde, 1998). Super와 Harkness(1986)는 아동과 문화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체계라는 것을 “발달적 적소(developmental niche)”라는 개념을 통해 은유적으로 표

현한 바 있다. 즉 아동이 살고 있는 물리적·사회적 환경, 아동 양육에 대한 관습, 그리고 양육자의 심리라는 세 가지 하위체계가 서로 조화와 변형을 경험하며 아동발달의 맥락(context)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비교 문화적 관점은 이러한 맥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한다. 오늘날 영아기 모성행동에 대한 비교 문화적 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견해와 귀인성향(Bornstein, Haynes, Azuma, Galperin, Maital, Ogino, Painter, Pascual, Pêcheux, Rahn, Toda, Venuti, Vyt, & Wright, 1998), 실제적인 양육행동과 이상적인 양육행동(Bornstein, Tamis-Lemonda, Pascual, Haynes, Painter, Galperin, & Pêcheux, 1996), 자녀관(Scholmerich, 1996), 어머니의 아기에 대한 반응성(Bornstein, Tamis-Lemonda, Tal, Ludemann, Toda, Rahn, Pêcheux, Azuma, & Vardi, 1992)과 대화법(Bornstein, Tal, Rahn, Galperin, Pêcheux, Lamour, Toda, Azuma, Ogino, & Tamis-Lemonda, 1992)에 있어 문화권 고유의 특수성과 더불어 문화권마다 공유하고 있는 문화 보편적인 양육특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신념이나 가치 또는 구체적인 행동특성과 태도 등은 대개 그 문화권의 관습과 가치체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홍상욱, 1984; Bornstein et al, 1998).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유교사회에서 유아교육의 지침서였던 소학(小學)은 아동으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의 도덕규범을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급되었다. 소학에서 중시하였던 예절, 질서, 절제, 청결 등의 실천윤리는 근대 산업사회에서의 가치덕목으로 강조되었을 뿐만 아니

라 현대사회 유아교육에서도 기본적인 생활교육의 내용으로 여전히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신양재·김영주, 1993; 이양희·박인숙, 1997).

일반적으로 문화적 가치체계를 개인주의(individualism)대 전체주의(collectivism) 또는 독립성(independence)대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이라는 이분법적인 구조로 설명한다(Raeff, 1997).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문화는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인 경향이 강한 반면, 비 서구문화는 사회 중심적(sociocentric)이고 상호의존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Harwood, Schoelmerich, Schulze, & Gonzalez, 1999; Raeff, 1997). Bornstein 등(1998)의 연구결과는 자녀양육에 있어 이와 같은 두 문화권의 차이를 잘 드러내 준다. 20개월 된 아기 어머니들의 양육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미국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개인적인 성취로 여기며 양육과제에서의 성공을 자신의 유능감으로 귀인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일본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노고와 유능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집단의 정체성과 사회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다. 개인주의적인 관점보다는 사회와 국가를 우선하는 국가적 동일화의식은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인격특성이기도 하다(홍상욱, 1984).

최근까지 국내에서는 영아기 모성행동에 대

한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이는 태도와 구체적인 행동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미국, 프랑스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영아기 이상적인 모성행동 특성과 그 유형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상적’이라 함은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나 관점에서 도출되는 기준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주관성(subjectivity)을 객관적으로 탐색하는 Q 방법론을 연구방법으로 선정하였다. Q 방법론은 가설 검증보다는 가설의 발견에 초점을 두는 가설생성의 논리이며, 이것은 연구자에 의한 조작적 정의가 아니라 피험자 스스로의 언어로 정신을 드러내는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방법(R 방법론)과는 크게 구별된다(김홍규, 1996). Lawton과 Coleman(1983)은 전문가나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특성을 조사할 때 피험자가 진술 문들을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성에 따라 순서화함으로써 자신의 주관적 구조를 드러낼 수 있다는 잇점을 들어 Q 방법론을 활용할 것을 강력히 추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지각하는 이상적인 영아기 모성행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한·미·불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영아기 이상적인 모성행동의 유형과 특성은 어떠한가를 밝히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P-sample)¹⁾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 국적의 아동학 관련분야 전문가 5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학 관련분야는 아동발달·임상·심리학, 유아교육학 및 특수교육학, 그리고 소아정신의학과 간호학 등의 학문분야를 지칭한다. 전문가라 함은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와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직종에서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이다.

각 문화권별 연구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는 모두 18명(남성 2명, 여성 16명)이었다. 이들의 연령범위는 28세~47세(평균연령 35.4세)였고 석사학위 소지자 3명, 박사과정 학생 8명, 박사학위 소지자 7명이었다. 현재 종사직종별로 학생 6명, 교수 5명, 의사 또는 임상가 3명, 보육교사 및 소아과 간호사 4명이었다. 미국의 경우,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는 모두 18명(남성 6명, 여성 12명)이었다. 이들의 연령범위는 25세~62세(평균연령 38.1세)였고 석사학위 소지자 4명, 박사과정 학생 6명, 박사학위 소지자 8명이었다. 현재 종사직종별로 학생 6명, 교수 4명, 의사 또는 임상가 4명, 보육교사 및 소아과 간호사 4명이었다. 프랑스의 경우,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는 모두 18명(남성 6

명, 여성 12명)이었다. 이들의 연령범위는 26세~74세(평균연령 42.3세)였고 석사학위 소지자 3명, 박사과정학생 6명, 박사학위 소지자 9명이었다. 현재 종사직종별로 학생 6명, 교수 4명, 의사 또는 임상가 5명, 보육교사 및 소아과 간호사 3명이었다.

2. 연구도구(Q-sample)²⁾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의견의 총체(Q-population)를 구성하기 위해 관련문헌과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다. 또한 전문가 4명과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 6명, 일반인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두 시간 가량 영아어머니 58쌍을 직접 관찰한 자료를 토대로 영아기 모성행동 특성에 대한 Q-population을 완성하였다. 그 결과 총 215개의 진술문을 수집하였으며, 문항이 중복되거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96문항으로 요약하였다. 연구를 위한 최종 문항(Q-sample)을 얻기 위해 아동학 전문가와 Q 방법론 전문가, 연구자가 협의를 거쳐 본 연구의 주제를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40문항을 Q-sample로 최종 선정하였다(부록 1). 이들 문항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하고 반응적인 특성, 상호작용과 자극의 제공, 애정적인 태도와 훈육, 그리고 어머니의 심리적 태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P-sample은 응답자로 생각될 수 있는 집합체인 P-population으로부터 추출된 사람을 의미한다. Q 방법론은 개인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내의 중요성의 차이를 다루는 것이므로 P-sample의 수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P-sample이 커지면 통계학적인 문제를 갖게 되므로 Q 방법론은 소표본 이론에 근거한다(김홍규, 1990).

2) Q-sample은 연구를 위해 수집된 항목의 집합체(Q-population)로부터 추출된 항목이다. 본 연구는 이론 검증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유형을 찾아내고 기술하며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비구조화된(unstructured) Q-sample을 사용하였다(김홍규, 1990).

3. 연구절차

조사를 위해 40문항의 Q-sample을 한국어와 영어, 한국어와 불어를 이중언어로 사용하는 전문가와 원어민(native speaker)에게 의뢰하여 각기 영어와 불어로 번안한 후 연구자와 협의하여 세부항목을 수정하였다. 분류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한글, 영어, 불어로 된 Q-sample의 각 문항을 8cm×7cm 크기의 카드형태로 제작하였다. 조사의 실시는 2001년 2월~10월 사이 프랑스, 미국, 한국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담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한 후 Q-sample의 분류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전문가들은 카드에 적힌 진술문의 내용을 읽고 영아기 모성행동으로서 바람직한 정도에 따라 '매우 바람직하다(+4점)'부터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4점)'에 이르기까지 <표 1>의 분포도와 같이 미리 정해진 매수대로 카드를 분류하였다. 카드의 분류가 끝난 후 '매우 바람직하다'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에 분류된 각 3장의 카드에

대해서는 P-sample로 하여금 그 이유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표 1> Q 표본의 분포도

점수	-4	-3	-2	-1	0	1	2	3	4
카드의 수	3	4	4	6	6	6	4	4	3

4. 자료처리 및 분석

전문가들이 분류한 자료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진술문부터 가장 부정적인 진술문에 이르기까지 9점에서 1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PC용 Quana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earson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Eigen 값 1.00을 기준으로 Varimax Rotation에 의한 주요인 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발견된 유형의 해석을 위해 각 유형별 표준점수, 타 유형과의 표준점수차이, 그 유형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진술문 및 인터뷰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한국, 미국, 프랑스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영아기 이상적인 모성행동

문화권별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영아기 이상적인 모성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 미국, 프랑스의 전문가 각 18명에 대해 Q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문화권의 전문가들이 각기 하나의 유형으로 묶임으로써 이상적인 모성행동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그 문화권 내에서 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³⁾.

표준점수 ±1.00 이상인 항목을 중심으로 각국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성행동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한국과 프랑스의 전문가들은 아기가 접하는 사물이나 환경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 주는 것(#4)과 같이 아

3) Q 방법론에서의 변인은 사람이다. Q-factor란 Q-sample을 비슷한 방법으로 분류한 사람들의 조합이므로 믿음, 태도, 의견 등에서 공통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Q-factor의 해석시 그것을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유용하다(김홍규, 1990).

기에게 적절한 언어자극을 제공해 주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모성행동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아기에게 신체접촉을 통해 자주 애정을 표현하는 것(#33)을 가장 바람직한 모성행동이라고 여겼다. 한편 세 문화권의 전문가들 모두 아기에게 냉담하거나(#16) 아기 혼자 오랜 시간 영상물을 시청하게 하는 것(#9)과 같이 무관심하고 방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표 2〉 한국, 미국, 프랑스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성행동

한국(n=18)		미국(n=18)		프랑스(n=18)	
Q	진술문 표준점수	Q	진술문 표준점수	Q	진술문 표준점수
4	1.64	33	1.89	4	1.90
33	1.61	2	1.46	33	1.76
18	1.46	18	1.43	17	1.60
20	1.44	17	1.35	20	1.42
17	1.41	27	1.33	2	1.40
25	1.33	4	1.26	8	1.21
26	1.26	26	1.20	18	1.20
21	1.22	5	1.10	25	1.20
27	1.01	19	1.09		
		40	1.05		
3	-1.01	37	-1.00	31	-1.13
31	-1.08	35	-1.11	35	-1.15
12	-1.13	14	-1.15	23	-1.20
1	-1.15	3	-1.26	28	-1.22
37	-1.20	13	-1.37	13	-1.42
36	-1.20	31	-1.56	3	-1.49
9	-1.63	9	-1.60	16	-1.56
16	-1.92	16	-1.91	9	-1.70

진술문들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세 문화권의 전문가들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모성행동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어머니가 아기 에 대한 정서적인 만족감을 갖고(#21), 아기의

개성과 주도성을 격려하며(#17,20,26,36)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를 하지 않는 것(#1,12)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의 전문가들은 어머니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아기에게 표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하며(#35) 아기의 행동에 대해 적절히 통제(#13)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미국의 전문가들이 아기의 상태나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5,14,37,40)과 양육활동에 대한 타인의 조언(#19)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대해, 프랑스의 전문가들은 아기의 욕구에 맞추어 반응하고(#8,23) 자연스럽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28)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2. 영아기 이상적인 모성행동의 유형과 특성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영아기 이상적인 모성행동의 유형과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 미국, 프랑스의 전문가 54명의 자료를 Q 요인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아기 이상적인 모성행동을 설명하는 세 개의 유형을 발견하였다. 전체 변량의 72.3%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세 유형에는 총 54명의 피험자 중 제 1유형에 26명, 제 2유형에 24명, 제 3유형에 4명이 해당되었다. 세 유형의 아이젠 값은 각 유형별로 35.58, 2.21, 1.26이었다. <표 3>에서 제시된 각 유형간의 상관계수는 각 유형간의 유사성의 정도를 보여주는데, 세 개의 유형간에는 .75~.87의 상

〈표 3〉 세 유형간의 상관관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1	1.00		
유형 2	.87	1.00	
유형 3	.79	.75	1.00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영아기 이상적인 모성행동에 대한 각 유형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유형에서 긍정적인 동의와 부정적인 동의를 보인 진술문의 표준점수, 다른 유형과의 표준점수의 차이, 각 유형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진술문과 인터뷰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각 유형을 설명하는 본문의 내용은 실제 응답자들의 진술문자료를 토대로 기술하였다. 각 유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유형 1 : 완벽주의적 관점

제 1유형은 전체변량의 66%를 설명함으로써 세 유형 중 영아기 모성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 속하는 26명의 전문가들 중 요인가중치 1.00 이상으로 이 유형을 대표하는 사람은 모두 16명이었다. 이들 중 12명은 미국의 전문가들이었으며, 나머지 4명은 프랑스의 전문가들이었다.

이 유형의 전문가들은 아기를 안아주거나 뽀뽀하는 등 신체접촉을 통해 자주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양육행동이라고 생각하였다(#33; Z=1.89). 이들은 애정 어린 접촉을 통해 아기가 행복감을 느끼고 어머니와 아기 서로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간의 몸짓은 수많은 언어를 대신할 수 있다고 여기므로 어머니가 아기의 얼굴표정이나 몸짓, 발성 등을 따라해 줌으로써 아기와 의사 소통하는 것을 바람직한 특성으로 본다(#27; Z=1.08).

이 유형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정서 중에서도

불안은 아기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나쁜 감정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아기를 안심시키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 아기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발달시키고 스스로 자신이 사랑과 돌봄을 받을 만한 귀한 존재라는 느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모성행동은 잠시 헤어지는 경우라도 아기를 안심시키고(#2; Z=1.52), 아기가 잘 있는지 자주 확인하며(#40; Z diff=1.04), 아기의 안전과 청결 상태에 신경을 쓰는 것(#15; Z diff=1.14)이다.

한편 이 유형의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에게 냉담해지고 무관심하게 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모성행동이라고 생각하였다(#16; Z=-1.91). 아기는 발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능을 익히고 변화를 거듭하므로, 어머니는 아기에게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어야 하고(#36; Z diff=.79), 한 순간도 아기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되며(#14; Z=-1.22, Z diff=-.91), 아기의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한다고 생각한다(#37; Z=-1.09. #24, Z diff=-.94). 또한 어머니가 아기를 키우면서 지치고 힘들거나(#21; Z diff=-.81), 어머니로서 역할이 과중하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가 있어도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아기에게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35; Z=-1.36, Z diff=-.88).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기에게 신경질적으로 행동하고 불안감을 준다면 아기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유형의 전문가들은 아기 혼자 많은 시간 TV나 비디오를 보도록 하는 것은 아기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극을 받아들이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매우 나쁘다고 보았다(#9; Z=-1.50). 반면 놀이활동에서 아

4) Q 방법론에서의 요인간의 상관관계는 R 연구에서의 요인분석방법과는 달리 각 요인간의 완전한 독립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유형들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두므로 유형간의 상관관계가 높고 낮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김홍규, 1997).

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놀이를 주도하도록 하고 아기의 놀이를 scaffolding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성행동이라고 생각하였다(#17; $Z=1.36$, #18; $Z=1.18$). 또한 초기 모자관계의 질은 아기가 자신의 세계를 구성하고 정서적·인지적 능력을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므로, 모자 상호작용에서 서로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3; $Z=-1.45$), 그러한 역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유형에 속하는 전문가들은 아기를 사랑하고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며, 동시에 민감하고 반응적이며, 어머니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아기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호 작용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성행동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제 1유형은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양육특성을 골고루 갖춘 이성적이고 완전무결한 어머니를 지향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제 1유형을 “완벽주의적 관점”이라고 명명하였다.

2) 유형 2 : 아동 중심적 관점

제 2유형에는 모두 24명의 전문가들이 속하였는데, 한국인 17명과 프랑스인 7명이었다. 이들 중 제 2유형을 대표하는 사람은 모두 16명으로 프랑스인 1명을 제외하고 모두한국의 전문가들이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전문가들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아기로 하여금 실물을 접하게 하고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은 아기가 세상과 의사 소통하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아기에게 주변에 있는 물건이나 바깥 환경에서 접하는 사물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모성행동이라고 보았다(#4; $Z=1.69$). 또한 아기가 안정적인 애

착을 형성하고 자신이 사랑 받는 존재임을 느끼려면 신체접촉을 통해 자주 애정을 표현하는 것(#33; $Z=1.61$)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이 시기의 영아는 발달단계 중 감각운동기에 있으므로 신체활동과 놀이활동을 통해 모아간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기와 마주보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신체활동을 하면서 노는 것을 어머니로서 매우 바람직한 양육행동으로 여긴다(#18; $Z=1.56$). 또한 이 유형의 전문가들은 아기로부터 어머니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그것을 삶의 자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기로 인해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21; $Z=1.19$).

그러나 모자간에 정서적 유대가 취약해지면 방임이나 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과 관심이 식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은 모성행동으로 여겼다(#16, $Z=-1.77$). 또한 아기에게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좋지 않은 자극에 노출시키는 행동으로서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아기 혼자 TV나 비디오를 보면서 보내게 하는 것(#9, $Z=-1.72$)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모성행동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유형의 전문가들은 아기의 개성과 주도성을 격려하는 것(#17, #20, #26, #36)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아기의 행동을 자주 간섭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자기 주장적 성향의 발달을 저해하고 아이가 위축되거나 산만하게 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타 유형과 비교하여 이 유형의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은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지 않으려고 어머니가 아기의 행동을 자주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것이었다(#1; $Z=-1.20$, $Z \text{ diff}=-1.42$). 반면 아기를

위해 TV 시청시간이나 취침시간을 특별히 정해두지 않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점수를 주었다(#13; $Z \text{ diff}=1.28$). 또한 어머니는 아기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어지르는 것을 세상 탐색을 위한 활동으로 이해하고 장난감을 빨리 치우으로써 아기가 활동에서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집안이 어수선한 것이 싫기 때문에 아기가 어지럽힌 장난감이나 물건 등을 곧바로 치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성행동으로 분류되었다(#12; $Z=-1.0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유형에 속하는 전문가들은 어머니가 아기의 존재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아기의 개성과 주도성을 격려하며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어머니는 아기가 스스로의 관심사를 찾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아기가 주체가 되도록 상호 작용하는 모성행동이 이상적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영아기 이상적인 모성행동에 대해 제 2유형의 특성을 요약하면 “아동 중심적인 관점”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3) 유형 3 : 현실주의적 관점

제 3유형을 대표하는 사람은 모두 4명이었다. 이들 중 2명은 미국의 전문가였으며 나머지 2명은 프랑스의 전문가였다. 이 유형은 아기로 하여금 좋아하는 장난감을 선택하도록 하고 아기가 원하는 방식에 맞추어 놀아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성행동이라고 생각하였다(#17; $Z=1.64$). 왜냐하면, 아기가 자신의 속도로 환경을 탐색하면서 관심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숙달감과 호기심을 발달시키는 것은 아기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신체접촉을 통해 자주 애정을

표현함으로써(#33; $Z=1.49$), 아기에게 신체적·정서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안전감을 전달하고 모자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유형에 속하는 전문가들은 어머니가 아기와 상호작용하고 아기에게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아기의 발달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4; $Z=1.39$, #18; $Z=1.27$, #8; $Z=1.04$). 또한 어머니는 아기가 발달과정에서 보이는 특이한 행동이나 이상 징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5; $Z=1.29$), 다른 아이와 구별되는 아기 나름의 독특하고 고유한 개성을 인정함으로써 아기의 자존감과 자아를 건강하게 발달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26; $Z=1.11$). 한편 이 유형의 전문가들은 아기가 싫어하거나 잘 먹으려 하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거나(#23; $Z=-1.38$) 아기의 안전과 청결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여긴다(#15; $Z=-1.25$). 그러나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지 않으려면 아기의 행동을 자주 간섭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1; $Z \text{ diff}=1.13$).

비록 아기를 사랑하고 많은 애정을 쏟는 것이 이상적인 모성행동이라고 여기지만 이 유형의 전문가들은 아기에 대한 애정과 배우자에 대한 애정을 별개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오히려 부부관계는 모자관계에 선행하는 것으로서 건강한 부부간의 양육동맹(parenting alliance)을 통해 정서적으로 건강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아기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의지하며 남편보다 아기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22; $Z=-1.64$). 이 유형의 전문가들은 TV보는 시간이나 취침시간을 특별히 정해두지 않고

(#13; $Z=-1.64$)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아기 혼자 TV나 비디오를 보게 하는 것(#9; $Z=-1.64$)을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모성행동이라고 생각하였다. 만약 24개월 이하의 어린 아기에게 영상 매체를 제공할 때는, 시청시간이나 빈도를 어머니가 조정하고 어머니가 아기와 함께 시청하면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아기가 두려움이나 불안 등의 부적 정서를 느끼지 않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이 유형의 전문가들은 아기가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어머니가 아기의 신호를 금방 알아채지 못하고 놓칠 때도 있으며 아기의 기분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37; $Z \text{ diff}=1.65$; #25; $Z \text{ diff}=-1.35$). 그러나 엄마로서의 역할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 어머니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아기에게 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35; $Z \text{ diff}=1.00$). 왜냐하면 아기는 어머니의 기분에 따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하찮은 대상이 아니며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결코 좋은 문제해결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육활동은 “chore”가 아닌 즐거움을 주는 행위이므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성행동이라고 생각하였다(#38; $Z=-1.16$; $Z \text{ diff}=-1.07$).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 유형에 속하는 전문가들은 양육을 아기와 어머니 자신의 능력과 욕구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활

동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아기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머니는 아기에게 자유를 허용하며 아기에게 맞추어 상호 작용한다. 마찬가지로 어머니 스스로 자신이 완벽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즉 어머니로서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면서 적절한 애정과 통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모성행동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영아기 이상적인 모성행동에 대한 제 3유형을 “현실주의적 관점”이라고 명명하였다.

4) 유형간 공통문항

이상적인 자녀양육에 대한 견해에서 세 유형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문항을 분석하였다. 먼저 세 유형 모두 이상적인 모성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체접촉을 통해 아기에게 자주 애정을 표현하고(#33, $Z=1.66$), 아기에게 많이 이야기해 주며(#4, $Z=1.51$), 함께 놀면서 아기의 주도성과 호기심을 격려해주는 것(#17, $Z=1.50$; #18, $Z=1.33$; #20, $Z=1.09$)이었다. 반면에 세 유형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모성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기에 대한 무관심이나 지나친 관심, 그리고 방임(#16, $Z=-1.73$; #22, $Z=-1.11$; #9, $Z=-1.62$), 양육활동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무기력해지는 것(#3, $Z=-1.14$; #31, $Z=-1.26$)이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 미국, 프랑스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성행동특

성과 그 유형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었다. 먼저 각 문화권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

상적인 모성행동 특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과 프랑스의 전문가들은 아기가 접하는 사물과 환경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성행동이라고 생각하였다. 두 문화권의 전문가들이 아기에게 적절한 언어자극을 제공할 것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과 프랑스의 어머니들이 자녀의 발달을 위해 언어발달을 촉진하고 개념이나 어휘 등을 가르치려는 행동을 많이 보이며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언어적 표현을 자주 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나종혜, 1993; Bornstein et al., 1992). 비록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서는 밝힐 수 없었으나 두 문화권의 어머니가 아기에게 하는 대화(maternal speech)의 목적과 내용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Bornstein 등(1992)은 아르헨티나, 프랑스, 일본, 미국의 어머니들이 영아에게 하는 말의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프랑스를 포함한 서구 문화권의 어머니들은 마치 성인에게 이야기하듯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으로 아기에게 말하는 경향이 있고 정보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강하였다. 이에 반해 일본의 어머니들은 문법에 맞지 않는 특정한 소리나 노래를 통해 애정 지향적인 말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와 전통은 다르지만 같은 동양권에 속하는 우리나라도 어머니가 아기에게 이야기하고 어를 때 일본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비문법적인 애정적 표현을 즐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험적 자료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동양권의 다른 나라 또는 서구문화권의 어머니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영아에게 하는 말에 있어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의 전문가들은 신체접촉을 통해 아기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아기에게 심리적인 안

정감을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영아기 모성행동이라고 생각하였다. 아기를 존중하고 애정을 표현하며 아기에게 민감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온정적·애정적 행동(warm/affectionate behaviors)은 미국 문화권에서 매우 바람직한 양육행동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모자관계는 양방적이고 상호적인 관계이므로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태도는 자녀로 하여금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하고 이는 다시 어머니의 바람직한 태도를 고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이다(Maccoby & Martin, 1983; Russell, 1997).

한·미·불 전문가 모두 자녀에 대한 무관심과 방임을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모성행동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거부적이며 무시하는 행동은 부당한 양육태도로서 결국 자녀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지도하지 못하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에 의해 뒷받침된다(박용임, 1995; 손혜련, 1996). 또한 아기의 행동에 적절한 한계를 설정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자극을 제공하는 것은 이상적인 양육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며(Bornstein et al., 1996),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불안정한 애착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Main & Solomon, 1990). 지금까지 설명한 세 문화권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전문가들은 가능한 간섭이나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아기의 주도성을 격려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모성민감성과 더불어 타인과 양육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프랑스의 전문가들은 아기가 원하는 바에 맞추고 자연스럽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미국과 프랑스의 모성행동에 대해

Bornstein 등(1998)은 미국의 어머니들이 양육 활동을 개인의 성취로 여기며 많은 투자를 하는 반면, 프랑스의 어머니들은 양육활동을 개인적인 노력의 산물로 보기보다는 자연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므로 양육활동에서 어머니의 직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로 요약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두 번째 과제인 영아기 이상적인 모성행동 유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세 유형이 발견되었다. 제 1유형은 양육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완벽성을 추구하고 있다. 즉 이 유형은 어머니가 아기에게 애정적이고 민감하며 동시에 반응적이고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기를 키우면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만족하고 아기와의 상호작용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유형의 전문가들은 자녀를 위해 완벽한 양육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2유형 역시 아기에게 애정적이고 민감하며 반응적인 모성행동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유형은 특히 아기에게 가능한 많은 자유를 허용하며 아기의 주도성을 격려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 유형의 특성은 아기에게 온정적이고 반응적이며 제한을 많이 가하지 않으면서 아기로 하여금 자신의 관심사를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아동 중심적인 관점”과 매우 유사하다(Miller-Loncar et al., 1997). 한편 제 3유형은 다른 유형과는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아기에게 항상 민감하고 정확하게 반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머니가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하지만 때때로 양육활동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한 아기에게 절대적인 규칙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훈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이 유

형에 속하는 전문가들은 양육을 아기와 어머니의 욕구와 능력에 따른 자연스러운 활동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아기에 대한 애정과 통제 간의 균형을 중시하는 이 유형을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명명하였다.

한편 자녀양육에 대한 비교 문화적 연구들은 문화권마다 공유하는 일단의 행동특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Bornstein et al., 1996; Bornstein et al., 1992; Bornstein et al., 1992). 본 연구에서도 영아기 이상적인 모성행동에 대해 세 유형간에 견해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음이 밝혀졌다. 즉 한·미·불 전문가들이 지각하는 이상적인 모성행동은 아기에게 자주 애정을 표현하고, 많이 이야기하며, 아기의 주도성과 호기심을 격려하는 것이었다. 또한 놀이활동에서 모자 상호간에 즐거움을 느끼고, 아기의 개성과 욕구를 존중하며 자율성을 허용하는 태도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반면 아기에게 지나친 애정이나 무관심을 보이는 것은 어머니의 우울한 정서와 더불어 양육활동을 저해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성행동으로 분류되었다.

이상에서 영아기 이상적인 모성행동에 대한 유형과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Q 방법론에서 유형은 Q-sample을 비슷한 방법으로 분류한 사람들의 조합이므로 한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믿음, 태도, 의견 등에서 공통적인 견해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 Q-factor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김홍규, 1990). 그러나 김홍규(1990)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많은 연구에서 Q-factor는 사람들의 인구학적 속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도 P-sample의 연령이나 직업, 성별 등과 같은 인구학적 자료는 특정 유형에 대한 설

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적은 각 유형의 특성을 설명하는 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제 1유형의 경우 요인가중치 1.00이상으로 이 유형을 대표하는 사람이 미국과 프랑스의 전문가 각각 12명과 4명이었으며, 제 2유형의 경우 총 24명중 한국과 프랑스의 전문가가 각각 17명과 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 2유형을 대표하는 사람이 프랑스인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한국의 전문가였고, 첫 번째 연구과제에서 밝혀진 한국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성행동과 매우 유사한 응답분포를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를 가설발견 또는 가설 생성이라는 Q 방법론의 논리에 비추어 볼 때, 한국과 프랑스의 전문가들이 비슷한 견해를 갖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제 2유형인 “아동 중심적 관점”이 한국적인 견해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 나라 유아교육기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원리가 바로 아동 중심적인 관점이다. 아동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의 문화적 규범이 아동의 일상생활에 반영되어 아동의 발달을 주도한다는 Vygotsky의 말대로 아동 중심적 사상이 영아기 모성행동에 대한 우리 나라 전문가들의 견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이소은·이완정, 1997).

이상과 같은 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영아기 이상적인 모성행동특성을 조사하였다. 전문가는 영유아 또는 그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체이므로 자녀양육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조사하는 것은 의미 있다. 그러나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의 수혜자가 되는 사람은 부모이므로 양육에 대한 부모의 견해를 조사하고 그것을 전문가의 견해와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양육행동과 실제적인 양육행동은 무엇이며, 전문가와 어머니가 생각하는 이상적·실제적 양육행동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수집도 가치로울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주관성 연구방법인 Q 방법론을 토대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비교 문화적 연구가 극히 드문 우리 나라 현실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우리 나라와 서구 또는 동양의 다른 문화권과 비교하여 양육특성을 심도 깊게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홍규(1990). Q 방법론의 이해와 적용.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언론학논선, 7, 20-57.
- 김홍규(1997). Q 방법론의 이론과 간호학 연구의 적용.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세미나 자료집.
- 나종혜(1993). 어머니와 탁아교사에 대한 유아의 애착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용임(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방경숙(2001). 영아기 어머니역할 교육 프로그램이

- 모아상호작용과 영아발달에 미치는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7(1), 21-34.
- 손혜련(1996).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모자간 애착, 유아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소은·이완정(1997). 거주지 계층에 따른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아동의 활동분석-아동유아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아동학회지*, 18(1), 5-21.
- 신양재·김영주(1993). 한국 신문에 실린 아동양육에 관한 기사내용 분석(2) : 1920년대부터 1970년대의 동야,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2), 159-175.
- 이양희·박인숙(1998). 소학의 기본생활교육과 제 5차 유치원 교육과정의 기본생활교육비교연구. *생활과학(성균관대학교)*, 1(1), 65-92.
- 홍상욱(1984). 한·일 양국의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2), 143-157.
- Aisworth, M. D.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ornstein, C. Z., Tal, J., Rahn, C., Galperin, C. Z., Pêcheux, M., Lamour, M., Toda, S., Azuma, H., Ogino, M., & Tamis-Lemonda, C. S. (1992). Functional Analysis of the contents of maternal speech to infant of 5 and 13 months in four cultures : Argentina, France, Japan, and the United States. *Developmental Psychology*, 28(4), 593-603.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Tal, J., Ludemann, P., Toda, S., Rahn, C. W., Pêcheux, M., Azuma, H., & Vardi, D. (1992). Maternal responsiveness to infants in three societies :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Japan. *Child Development*, 63, 808-821.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O. M., Painter, K. M., Galperin, C. Z., & Pêcheux, M.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 Bornstein, M. H., Haynes, O. M., Azuma, H., Galperin, C., Maital, S., Ogino, M., Painter, K., Pascual, L., Pêcheux, M., Rahn, C., Toda, S., Venuti, P., Vyt, A., & Wright, B. (1998). A cross-national study of self-evaluations and attributions in parenting : Argentina, Belgium, France, Israel, Ital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662-676.
- Cho, R. K. (2000). The parenting of immigrant Chinese and European American mothers : Relations between parenting styles, socialization goals, and parental practice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1(2), 233-248.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3), 487-496.
- Goldsmith, H. H. & Alansky, J. A. (1987). Maternal and infant temperamental predictions of attachment :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805-816.
- Harwood, R. L., Schoelmerich, A., Schulze, P. A., & Gonzalez, Z. (1999). Cultural differences in maternal beliefs and behaviors : a study of middle-class Anglo and Puerto Rican mother-infant pairs in four everyday situations. *Child Development*, 70(4), 1005-1016.
- Lawton, J. T., & Coleman, M. (1983). Parents' perceptions of parenting.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4, 352-361.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 Parent-child interaction. In Mussen, P. H.(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pp. 1-101). NY : Wiley.
- Miller-Loncar, C. L., Landry, S. H., Smith, K. E., & Swank, P. R. (1997). The role of child-centered

- perspectives in a model of parenting.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66, 341-361.
- Raeff, C. (1997). Individuals in relationships : Cultural values, children's social interactions, and the development of an American individualistic self. *Developmental Review*, 17, 205-238.
- Russell, A. (1997). Individual and family factors contributing to mothers' and fathers' positive paren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1(1), 111-132.
- Scholmerich, A. (1996). Attachment security and maternal concepts of ideal children in Northern and Southern German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4), 725-738.
- Stevenson-Hinde, J. (1998). Parenting in different cultures : time to focus.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698-700.
- Super, C. M., & Harkness, S. (1986). The developmental niche : a conceptualization at the interface of child and 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9, 545-569.

〈부록 1〉 Q-sample과 각 유형에 대한 문항별 표준 점수

문 항	각 유형별 표준점수		
	I	II	III
1.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기 싫어 아기의 행동을 자주 간섭하거나 제한하게 된다.	-1	-1.2	.5
2. 내가 보이지 않으면 아기가 불안해 할까봐 잠시 헤어지는 경우라도 꼭 아기를 안심시킨다.	1.5	.7	1.4
3. 아기와 함께 노는 것이 그다지 즐겁지 않고 아기도 별로 재미있어 하지 않는 것 같다. 아기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행동에 오히려 아기는 귀찮아 하는 것 같다.	-1.4	-1.0	-1.0
4. 아기 주변에 있는 물건이나 바깥 환경에서 접하는 사물들에 대해 아기에게 많이 이야기해 준다.	1.5	1.7	1.4
5. 아기가 심하게 울거나 특이한 행동을 보이면 이상한 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있지 않나 걱정된다.	1.1	.5	1.3
6. 아이가 재미없어해도 한번 시작한 활동은 가능한 끝마치고 다른 활동을 하도록 한다.	-2	-.7	-.1
7. 아기를 위해 쓰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다. 아기에게는 무엇이든 최고급을 해주고 싶다.	.1	-.9	-.3
8. 아기가 심심해할 때 장난감이나 재미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서 아기를 즐겁게 해준다.	.8	.9	1.0
9.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아기 혼자 TV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1.5	-1.7	-1.6
10. 아기가 예쁘게 보이는지 아기의 옷이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	.1	-.2	.1
11. 남편이나 친척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아기를 맡겨두었을 때 아기가 혹시 방치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진다.	-.1	-.1	-.8
12. 집안이 어수선한 것이 싫기 때문에 아기가 어지럽힌 장난감이나 물건 등을 곧바로 치운다.	-.6	-1.0	-.4
13. 아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마음껏 하도록 둔다. TV 보는 시간이나 취침시간을 특별히 정해두지 않는다.	-1.4	-.2	-1.6
14. 집안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아기가 조용히 있으면 곁에 아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한다.	-1.2	-.5	-.1
15. 아이가 낯선 사람에게 가까이 가거나 더러운 것을 만지지 못하도록 늘 신경을 쓴다. 젖은 기저귀나 옷은 즉시 갈아 입힌다.	.1	-.8	-1.3
16.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에게 냉담해지고 별로 관심이 없어진다.	-1.9	-1.8	-1.5
17. 아기와 함께 놀 때, 아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선택하도록 하고 아기가 원하는 방식에 맞추어 놀아준다.	1.4	1.5	1.6
18. 나는 아기와 마주보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신체활동을 하면서 같이 노는 것을 좋아한다.	1.2	1.6	1.3
19. 아기를 키우는 이웃이나 친구와 생각을 공유하게 된다. 책이나 친구, 어른들을 통해 아기를 키우면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상의한다.	.7	.8	.9
20. 아기가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열중해 있으면 아기를 방해하지 않고 잠시 물러서서 지켜본다.	1.0	1.5	.8

문항	각 유형별 표준점수		
	I	II	III
21. 아기가 나를 힘들고 지치게 할 때도 있지만 아기로 인해 기쁘고 행복할 때가 훨씬 더 많다.	.2	1.2	.9
22. 나는 아기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의지하고 있다. 남편보다 아기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다.	-.7	-1.0	-1.6
23. 아기가 싫어하거나 잘 먹으려 하지 않는 음식도 아기의 건강을 위해 억지로 먹이는 편이다.	-.9	-.5	-1.4
24. 아기가 울거나 칭얼대면 아기를 달래기 위해 애를 먹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다.	-1.0	-.3	.3
25. 아기가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 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1.1	1.3	-.1
26. 우리 아기가 다른 아이와 똑같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다른 아이와 좀 다른 면이 있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개성이라 생각한다.	.8	1.1	1.1
27. 아기의 얼굴표정, 몸짓, 발성 등을 자주 따라해 준다.	1.1	1.0	.9
28. 아기가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말이나 행동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9	-.9	-.1
29. 다른 사람이 우리 아기에 대해 평가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부정적인 말이나 태도를 보이면 화가 난다.	-.3	-.5	-.4
30. 아기가 무언가를 요구하면 내가 하던 일은 멈추고 곧바로 아기의 요구를 먼저 들어준다.	.4	.3	-.4
31. 아기를 키우면서 가끔 굉장히 우울해질 때가 있다. 일상적인 양육활동에 지치고 점점 무기력해진다.	-1.4	-1.1	-1.3
32. 어려서부터 옳은 일과 잘못된 일은 분명히 구분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7	.6	.5
33. 아기를 안아 주거나 뽀뽀하는 등 신체접촉을 통해 자주 애정을 표현한다.	1.9	1.6	1.5
34. 나는 아기를 위해 놀이감이나 책을 구입할 때, 흥미위주의 것보다는 아기에게 교육적으로 유익할 것 같은 것을 구입한다.	.0	.1	.3
35. 엄마로서의 역할이 과중하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을 때, 아기의 행동에 매우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1.4	-.9	-.1
36. 아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늘 곁에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1.2	-1.4
37. 아기가 내게 보내는 신호들을 금방 알아채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	-1.1	-1.1	.5
38. 아기를 맡아줄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거나 여행을 가고 싶다.	-.2	.0	-1.2
39. 나는 멋진 엄마가 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나 자신의 건강과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	.0	.7	-.4
40. 아기를 혼자 놀게 하고 집안 일을 할 때 아기가 잘 있는지 자주 확인해 본다.	1.0	.6	.9